



고등학교 **사회·문화**

구정화 · 설동훈 · 박윤경 · 주은옥 · 설규주



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 문제는 무엇일까?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문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는 인간이 될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연구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전인지 양육인지'를 살펴보려고 쌍둥이를 분리하여 양육하는 연구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둘째는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속이고 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연구 목적과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 주고 대상자를 모집해야 한다. 셋째는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문제이다. 질문지, 면접,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는 연구 대상자의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연구 결과의 분석과 보고 과정에서도 연구 대상자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연구 윤리 문제를 담보하려면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자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국 조사 연구 학회
www.kasr.or.kr

자료 수집

연구 대상자를 위한 윤리

■ 연구 대상자의 후일담: “요즘 젊은이들은 그 상황이 얼마나 사실 같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순간에는 실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예일 대학이 권위가 있어서 복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밀그램 박사가 예일대 실험실에서 했던 것을 일반 길거리에서도 했었는데, 실험에 참여한 많은 사람이 그 명령에 따라 여전히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랬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150볼트에서 멈추었어요. 멈추었다고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그날 그 실험실, 후드득거리는 푸른 불꽃, 안에 있던 학생의 비명……. 등이 제 몸속에 완벽하게 보존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그날의 실험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로렌 슬레이터,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2005년 -

■ 한국 조사 연구 학회에서 설정한 '조사 윤리 강령'에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책임 부분

- 조사자는 조사 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들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조사자는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단, 조사 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밝힐 수 있다.
- 조사자는 조사 대상자가 자유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 조사자는 연구를 가장해서 판매나 정치적 선거 운동과 같은 다른 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연구를 거짓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 조사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 결과를 사용할 때도 조사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연구 과정, 결과 보고와 활용에서 윤리 문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연구 진행 과정 및 결과 보고와 활용에서도 윤리 문제가 존재한다. 연구자 스스로 연구 자료를 설계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하는 문제나, 결과 발표 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확대하거나 감추어서 왜곡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도용하는 등의 행동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모두는 과학적 연구 태도가 아니며 연구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활용될 경우, 자신이 제시하는 결과가 사회 다수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정부 정책에 왜곡되어 반영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연구자의 윤리이다.



활동하기 4 '연구자의 가치'와 연구 결과의 활용?

다음 자료를 통해 연구 결과 활용에서 윤리적 문제를 탐구해 보자.

자료1 우생학(eugenics)은 인류를 유전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으로 1800년대 말에 영국의 골턴에 의해 만들어진 학문이다. 기본적으로 우생학에서는 인간 개인이나 인종이 가진 형질을 사회 유지와 관련하여 우수한 형질과 그렇지 않은 형질로 구분한다. 그런 후 열등한 형질을 가진 인간을 단종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런 우생학을 실제의 사회에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나치 독일의 인종 정책이었다. 나치 독일은 우생학에 근거하여 1930년대 혼혈아와 청소년 범죄자에게는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행했다. 게다가 나치는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면서 사실상 인종 청소를 시도했다.

-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2009년 -

자료2 독일 히틀러 시대의 과학자처럼, 과연 그들은 정치가의 등쌀에 떠밀려 할 수 없이 이런 저런 나쁜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자유 의지를 고수할 능력도, 판단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굳건히 지키고자 독재에 항거하고 투쟁한 사람은 수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소련의 독재에 항거했던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가 있다. 소련에서 수소 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는 핵무기 감축과 평화 공존을 주장하여 물리학자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명예를 누렸다. "히틀러의 과학자들"의 저자 존 코웰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히틀러 당시 전쟁 때문에 할 수 없이 신무기 개발에 앞장섰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그들은 전쟁 속에서 했던 일을 평화적인 시기에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도덕과 양심이다." 이 점은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 ○○일보, 2010년 7월 13일 -



활동 길잡이

• 우생학의 연구 과정이나 결과의 활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의 윤리 문제를 찾아보자.



1. [자료1], [자료2]에서는 연구자의 어떤 윤리를 강조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2. 두 자료를 보면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의 윤리 지침을 만들어 보자.